



GS칼텍스, ‘韓 경영대상’ AI 혁신부문 대상

GS칼텍스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인공지능(AI)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AI 혁신 부문은 올해 신설됐으며, GS칼텍스는 지난해 DX 혁신 부문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오른쪽)이 제3회 DT Day 행사에서 임직원들과 DAX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GS칼텍스



HMM, 임직원 물품기부 캠페인 ‘아름다움’ 진행

HMM은 지난달 24일부터 임직원 물품기부 캠페인 ‘아름다움’(HMM) 행사를 진행, 1200여 점의 물품을 모았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이 캠페인은 매년 임직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HMM은 임직원 기부 물품과 회사에서 마련한 기부금을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HMM



동아제약, ‘韓 착한기부대상’ 국무총리 표창

동아제약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오른쪽부터)김용운 동아제약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도익원 동아제약 CSR팀 팀장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제약



bhc, ‘韓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장관상 수상

다이닝브랜드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제26회 한국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bhc는 이번 수상에서 ▲가맹점과의 다양한 상생 경영 활동 전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갈등 해소 및 협력 강화 등 가맹점 손익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bhc



우리금융미래재단, 양육시설 아동에 선물 전해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금융 위비산타 출정식’을 개최하고 전국 아동 양육시설 초·중등생 6500명에게 8억원 규모의 크리스마스 선물 ‘꿈 응원상자’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꿈 응원상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국 아동양육 시설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스타얼라이언스,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항공동맹’ 선정

‘2025 월드 트래블 어워즈’ 선정 세계적 수준 여행경험 제공 헌신

아시아나항공은 자사가 속한 스타얼라이언스가 ‘2025 월드 트래블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의 항공 동맹’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월드트래블 어워즈는 세계 여행·관광·호텔·항공 업계를 아우르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각 부문 수상자는 전 세계 여행 업계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여행객)를 대상으로 한 투표를 종합해 선정된다.

그레이엄 E. 쿡 월드 트래블 어워즈 설립자는 “깊임이 없이, 세계적 수



스타얼라이언스

준의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스타얼라이언스의 탁월한 헌신을 보여 주는 결과”라며 “스타얼라이언스 팀

의 전문성과 노력이 항공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삼성, 연말기부 행렬 확산

현대차그룹, 연말 성금 350억 전달 삼성, 이웃사랑 성금 500억 기탁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에도 삼성을 비롯, 현대차그룹,한화그룹 등 재계의 연말 기부 행렬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해왔다. 올해까지 23년간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4640억원이다.

현대차그룹은 성금 전달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유소년 스포츠단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프트카’, 학대 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케어’,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H-점프스쿨’ 등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1일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 교육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을 기탁했다. 올해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

/양성운 기자 ysw@

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 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총 23개 관계사가 참여해 성금을 모았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11월 한 달간 ‘기부약정 캠페인’을 통해 2026년에 참여할 사회공헌(CSR) 프로그램과 기부액을 선택했다. 임직원이 내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한 약정액을 회사도 같은 금액만큼 기부하기로 했다. 삼성은 1999년 처음 연말 성금을 기탁한 뒤 올해까지 27년 동안 연말 이웃돕기 나눔을 지속해 왔다.

한화그룹도 지난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 돕기 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 (주)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6개 계열사가 이번 기부에 참여했다. 한화그룹은 사회 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가치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사로서 韓·UAE 100년 동행 앞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아부다비 금융주간 서밋 개최사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인 김동원 사장이 아부다비 금융주간(Abu Dhabi Finance Week·ADFW) 2025의 글로벌 마켓 서밋(Global Markets Summit) 개최사를 맡아 한·UAE 간 금융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양국의 ‘100년 동행’을 내세우며 실물 자산 공동투자, 공급망 금융,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등 미래 금융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금융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ADFW 2025 공식 세션인 글로벌 마켓 서밋에서 개최 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1980년 수교 이후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왔다”며 “금융사로서 양국의 ‘100년 동행’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UAE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계를 지향하는 공통된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사장은 특히 “양국의 지속가능

1997년 설립된 스타얼라이언스는 매일 190개국 1150개 공항에 1만 8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띄우고 있으며 정식 회원사 외에도 커넥팅 파트너 준야오항공에서도 연결편을 제공한다.

테오 파나지오톨리아스 스타얼라이언스 최고경영자는 “여행객과 업계 관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항공 동맹에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스타얼라이언스는 언제나 고객의 여정을 더욱 편안하고 원활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이 8일(현지시간) ADFW 2025의 글로벌 마켓 서밋 현장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화생명

한 금융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은 협력의 의지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촉매이자, 산업과 혁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부다비의 고도화된 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한·UAE 협력이 실물 자산 공동투자, 공급망 금융, 국경 간 결제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등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희 기자 gh471@

SPC그룹, 헌혈·물품기부 송년행사 진행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SPC그룹이 연말을 맞아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따뜻한 송년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는 ‘헌혈 송년회’와 물품 기부 캠페인 ‘기부, GIVE(기브)해’가 열렸다. 대한적십자사남부혈액원과 함께하는 헌혈 송년회는 2011년부터 이어온 SPC그룹의 대표 연말 행사다. 뜻깊은 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1627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동절기 헌혈이 줄어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됐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며 연말을 보내게 되어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SPC그룹 임직원들이 헌혈·기부로 따뜻한 송년 행사를 진행했다.

/SPC

‘기부, GIVE해’ 캠페인은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생활용품 등을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에 전달하면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PC그룹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임직원이 1만 개의 물품을 기부했다. 올해도 총 820여 물품이 모였으며 임직원과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분류·검수 작업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네오위즈홀딩스, ‘오색오감’ 활동 성료

두 달간 임직원과 사회공헌 활동

(주)네오위즈홀딩스는 지난 10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임직원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2025 오색오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오색오감’은 네오위즈홀딩스와 네오위즈 및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오색오감’은 다섯 가지 활동으로 다섯 가지 감동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자연과 세상을 잇다’라는 테마 아래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폐장난감을 재활용하기 위한 장난감 분해 활동, 폐트병을 업사이클하는 상평이 안전키링 제작 활동,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교란 어류 제거,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기부 목공 등 다섯 가지 활동을 순차적으로 펼쳤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인사

◆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국민성장 펀드부부장 신혜숙
◆ **인사이트 코리아** △광고마케팅본부 상무 이창수 △경영지원본부 부장 윤여녕 △편집국 차장 김동수 박지훈

부음

▲황순봉 씨 별세, 권오훈(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씨 장모상=9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수원연화장, 02-923-4442.